

고창 '금토끼 야시장' 대박났네

읍성 인근 매주 금·토 먹거리 장터 지역 청년·군민 신청받아 운영 3개월간 일일 평균 2000명 방문 군, 바가지요금 근절 등 보완 나서

고창군이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는 '금토끼 야시장'이 호응을 얻고 있다.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고창읍성에서 고창전통시장으로 연결된 구도심 골목길에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창군은 올해 쇠퇴하고 있는 구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고창 금토끼 야시장의 3개월간 방문객이 일일 평균 2000여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판매부스 매출액도 금·토요일 2일간(5시간/일) 운영에 따라 매대당 평균 57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야시장은 여름의 문턱에 접어들며 방문객이 대폭 늘어났다. 색색의 알전구가 켜진 야시장에선 화덕피자와 장어덮밥, 치즈버거, 새싹보리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맛볼 수 있다.

고창군은 100% 지역 청년들과 군민들의 신청을 받아 먹거리 포차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여름날 분위기를 띄우는 합창 공연과 트롯공연이 열리며 방문객들은 선선한 저녁공기 속에 야시장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다.



고창 금토끼 야시장을 방문한 심덕섭 군수가 포장마차 업주와 파이팅을 외치며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고창군 제공>

특히 고창 금토끼 야시장은 지역 체류형 야간관광인 고창읍성 야경과 어우러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군은 한류스타 공유가 머물고 넷플릭스 등에 소개된 마문 고창읍성한옥호텔을 비롯해 석정힐링카운티, 주변 펜션 등에 숙박하거나 벚꽃축제, 청보리밭 축제 등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저녁식사 후 친구, 연인, 가족들과 야시장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고창군은 추후 예산 확보를 통해 야시장 협소, 소음 등 그간 제시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인 야시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야시장을 통해 저녁 구도심에 다양한 연령층이 붐비기 시작했다"며 "관광객이 지역에 좀 더 오래 머무르고, 군민 또한 즐거운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없애고, 더 풍성한 먹거리, 볼거리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홍조 기자 khj@kwangju.co.kr

남원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소상공인 등 경제적 부담 완화

남원시는 고물가·고금리 등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등을 고려해 올해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은 민간 사업자와 개인 등이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은 제외된다.

도로점용료 감면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지원 대책 일환으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총 2억5000여만원이 감면됐으며 소상공인 등 민간의 경제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년 도로점용료 정가분은 6월 셋째 주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 예정 건수는 약 1100건이다. 약 7000여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다. 25% 감면 후 고지서가 발송되는 만큼 별도의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정읍 학생들 '청소년 공감존'으로 모여라

고향사랑기금 공모 사업 선정...카페·파티룸 등 7일부터 개방

정읍시가 고향사랑기금사업을 활용해 청소년문화체육관 내 '청소년 공감존'을 조성하고 오는 7일부터 청소년들에게 개방한다.

청소년공감존은 정읍 고향사랑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돼 2500만원을 투입해 청소년문화체육관 1층에 조성했다.

공감존은 꿈누리 카페(컴퓨터, 독서, 보드 게임, 휴게공간), 아지트1(가상현실게임, 댄스), 아지트2(회의, 영상 시청 공간), 파티룸(축하 파티, 메이킹업, 포토, 휴게공간)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문화체육관 이용수칙에 따라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지역 내 청소년들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소년 공감존은 고향 사랑



청소년 공감존 내부. 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기금으로 마련된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인 만큼, 정읍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읍을 사랑하고 행복한 곳으로 늘 기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올해 1456필지 지적재조사

국비 3억4000만원 투입 시기 2지구·4지구 대상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 관리에 나선다

정읍시는 최근 2024년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 회를 열고 수성1지구와 장명지구에 대한 면적 증감필지 조정금 산정, 상동1지구와 덕안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을 비롯해 토지이동 정리 허용여부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에 따른 조정금의 지급과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다.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임과 동시에 토지의 정형화와 경계분쟁 해소, 도로에 접하지 않는 지적도상 맹지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비 3억4000만원을 투입, 시기2지구와 시기4지구 등 2개 지구 1456필지를 대상으로 추진 중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되고 이웃과의 경계분쟁을 해소시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관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 문화의 달 행사 전통·퓨전 국악으로"

10월18~20일 광한루원 일원 ...창극·판소리·농악 등 융합

남원시가 '2024 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이 어우러진 공연을 준비 중이다.

남원시는 오는 10월18일~20일 '남원 전통과 퓨전의 소리 풍류에 빠지다'를 주제로 한 국악공연이 광한루원 일원에서 열린다고 4일 밝혔다.

개막식과 함께 창극, 판소리, 농악 등의 전통국악과 퓨전국악을 융합한 이번 공연은 전세계 5000만 조회수를 기록한 한국관광공사의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를 기획하고 '범 내려온다'를 연출한 관광공사의 오홍섭(사진) 전북지사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았다.

이어 국악이론 연구, 공연기획, 전통예술 정책 개발 등 현장과 이론 분야를 넘나들며 국악 진흥에 기여해 온 국립민속국악원 김중현 원장이 총괄감



최경식 남원시장은 "대한민국 전통 명품 정원인 광한루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24년 문화의 달 행사'에 많이 오셔서 전통 음악과 춤, 소리 등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되는 10월의 축제를 남원에서 즐겨달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구파 백정기 의사 항일정신 재조명

오늘 정읍 YMCA서 순국 90주년 기념 학술회의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구파 백정기 의사(사진)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순국 9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5일 오후 2시 정읍 YMCA 청소년수련관 녹두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회의는 국가보훈부의 '2024년 학술회의 및 문헌발간 지원사업' 공모에 구파 백정기 의사의 후손인 '아호K로컬콘텐츠연구소' 백남이 대표가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윤봉길, 이봉창 의사와 함께 삼의사로 알려진 구파 백정기 의사가 시민이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그의 독립운동 활약상과 애국정신을 그리고 인간적 면모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취지다.

특히 육상정의거로 일컫는 주중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 암살 미수사건의 전말 규명을 위해 일본 외무성 재판기록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사실 접근이 이번 토론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작가로도 활동하는 백남이 대표 "구파 백정기 의사의 순국 90주년을 맞아 이번 학술회의 개최는 정말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독립운동사 연구에 있어 백정기 의사에 대해 재인식시키고, 독립투사들의 애국정신과 미래 비전에 대한 탐구와 방향 제시라는 새로운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프론티어벤처 | KIBO |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